

## 經濟 발전과 大學教育 과제

朴 乃 會  
(西江大 商經大學長)

### 1. 教育과 經濟發展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은 흔히 그 나라의 국가 발전과 동일시 하여 왔으며, 발전 목표나 투자의 우선 순위 결정에 있어서도 최고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 한층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역시 과거 30여년 동안 이러한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천 부존 자원이 매우 빈약하였고 민족 자본의 축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는 지난 25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경제 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고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良質의 低廉'한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공급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그동안 교육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우리나라의 문화

배경을 말하여 주고 있다. 더 나아가 교육 발전이 바로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한편 경제 발전의 과실이 소득 증가에 의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궁극적으로 고등교육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국민 소득이 향상되고 그 나라의 경제 역시 성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교육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Harbison과 Myers는 중등·고등교육의 취학률을 비롯하여 고등 인력이 경제 발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다.<sup>1)</sup> 한편, Curle의 연구 결과에도 '인당 국민 소득과 중등·고등교육 취학률의 상관 관계가 正的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등·고등교육 취학률이 교육비와 함께 국가 발전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sup>2)</sup>

고등교육에 의한 노동의 질적 개선과 기술의 진보는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 성장이란 불변 가격으로 측

1) Harbison, Frederick and Charles A. Myers, *Education, Manpower and Economic Growth: Strategie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New York: McGraw Hill, Inc., 1964).

2) Adam Curle, "Education, Politics and Development", *Comparative Educational Review* 8, (Feb. 1964), p.226~245.

정된 국민 소득의 증가이며 이러한 국민 소득의 증가는 국민 경제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자본·토지 등과 같은 투입 요소의 量的 변화와 투입 요소당의 산출인 요소 생산성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이 투입 생산 요소인 노동을 質的으로 개선시킴으로써 국민 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또한 교육에 의한 기술 진보 요인에 의해서도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 다시 말하여 국민 총생산의 증가는 투입된 생산 요소의 量的 증대에 의한 뿐만 아니라, 특히 人的 투입 요소인 노동의 質的 개선이나 요소 통합 능력인 경제적 기술 진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교육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한국 교육이 그동안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분을 측정한 결과로서는 1960~1974년 기간에는 평균 0.52%, 1970~1980년의 기간에는 평균 0.8%에 이르고 있다.<sup>3)</sup>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이 노동의 質的 개선을 통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한 정도가 '60년대에는 약 0.6%였고, 그후 점차 증가하여 '70년대에는 약 0.8%에 이르고 있는 것은 노동의 質的 개선이 초기에는 주로 초·중등교육의 확충에 의하여 이루어져 근래에 와서는 고등교육의 확충에 의한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 발전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으며 이러한 중요성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80년대초부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극악 상태를 나타내게 되고 '80년대 중반부터 점차 채무국으로 전환되면서 미국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약화 요인을 어떤 경제 정책 이전에 미국 교육의 방법과 교육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오늘날의 쇠약한 미국 경제는 '쉬운 것을 좋아하는 미국의 低質教育'에 있다고 결론 짓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 배경을 근간으로 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교육을 중시하고 학력을 높게 평가하는 풍토였다. 이러한 연유에

서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가치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요인이 오늘날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한편 이러한 신념은 고등교육에 대한 과대한 수요를 조장하여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대학교육의 투자에 대한 신념은 우리 사회에 대학교육 기관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과거와 같이 값싼 노동력을 근간으로 하여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이룩할 수 있는 터전은 줄어들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은 지식과 정보 집약 산업을 주축으로 하여 첨단 기술을 개발하여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차원 높은 전문 인력 및 고급 인력과 이를 보조하는 기능 인력이 대량으로 필요할 것이다.

## 2. 大學教育의 方向

한 나라의 경제와 교육의 상호 관계는 매우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그러나 앞으로 기술집약적이고 첨단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교육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 정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학교육의 과제가 있다.

### 1) 大學教育의 量과 質의 調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해방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하여 급격하게 양적인 팽창을 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미 대학교육 인구는 소수의 엘리트 단계를 벗어나 대중화 단계에 들어설 것이다. 해방 이후 대두되기 시작한 교육 기회의 확대와 균등화에 대한 民主教育 이념과 교육에 대한 권리의 의식 그리고 사회적 지위 향상 수

3) 金信福의 3人, "國家發展에 대한 高等教育의 寄與", 서울: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3, p.73.

단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등은 각급 학교의 교육 인구를 급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 인구 증가의 파급 효과는 결국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 수요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그동안 수차에 걸쳐 경제 개발이 수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고급 인력 수요가 증대되어 전체 고등교육의 인구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고등교육 인구의 증가는 국가 발전을 위한 고급 두뇌 경쟁이 격화되고 고급 인력의 양산이 국력의 한 지표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고등교육의 질이 수반되지 못한 量的인 증가는 국력의 낭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경제 발전에 따른 고급 인력의 수요 증대에 따라 학생 수를 증가시켜 왔을 뿐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교수 요원의 확보와 교육 시설의 확충 등과 같은 교육 여건의 개선에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노력이 뒤따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대학교육의 발전 전략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고등교육의 산업 수요와 인력 수요를 감안하여 대학교육 인구의 적정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대학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수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적 기준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향후 대학교육의 기회 확대와 균등화를 실현하고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수요에 따라 교육 체제를 다양하게 하고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多様な人材의 要請

경제 범위가 커지고 활동 범위도 넓어짐에 따라서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인재의 자격 요건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과거에는 엘리트 중심의 대학교육 체제에서 소수 정예의 학생들에게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대중화로 대학교육의 기회가 폭 넓게 확대되고 있다. 결국 산업 발전의 배경 아래서 대학교육의 기회 확대는 대학교육 인구의 다양화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증가된 대학 인구는 서로 다른 능력과 적성 및 지식과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

으로나 경제적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상에서 기업 관리자들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원활히 보급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과 교수 방법들의 새로운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인재를 충족시키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대학들이 특색 없이 비슷한 형태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대학교육에 대한 산업체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였다. 즉 대학간에 기능의 중복과 불균형 그리고 상호 역할 분담의 미흡 등으로 전체 대학의 기능과 역할 수행이 부진함은 물론이려니와 대학교육에 있어서 수월성과 다양성이 저해되어 왔었다. 따라서 대학이 다양성 속에서 기회의 평등성과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들이 독자적이고 고유한 모형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학 상호간의 기능과 역할 분담은 물론 대학별 중점 육성 분야 등을 개발하는 등 그 유형에 있어서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모든 대학들이 동일한 유형으로 발전되는 획일적인 경향을 지양하고 각기 비교 우위의 분야를 중점 육성하며 특색 있는 학문 성향을 조성하도록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에는 물론 이들 대학들간에 기능의 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기능 분화는 교육 투자의 측면을 고려하여 국·공립대학에는 고가의 투자를 요하는 이·공 계열 그리고 사립대학에는 낮은 투자를 요하는 인문·사회 계열에 중점을 두도록 기능을 분화하여 육성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둘째로 모든 대학들이 종합대학교화하려는 경향을 지양하고 대학이 학부 교육과 대학원 교육의 연계 속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학원 중심 대학은 엘리트 교육 지향 대학으로서 학부의 규모보다 대학원 규모를 크게 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원이 없는 대학은 교양교육 중심 대학이나 전문 직업 교육 중심 대학으로서 종합적인 전공 영역 없

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산업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기 위한 평생 교육 및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에 설치할 것이다. 이러한 평생 교육이나 성인 교육의 필요성은 산업 역군에 대하여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한 방법인 것이다.

### 3) 大學間의 協力體制 構築

고도의 산업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의 가속적인 팽창으로 단일 대학이 모든 지식과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성은 뚜렷하다. 즉 단일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에는 한계가 있어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대학교육의 수월성과 효율성 제고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미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구미 선진 각국의 대학들은 협동 체제를 구축하여 협동 교육 및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각 대학이 특정 분야에 대한 비교 강점이 있으면 그 분야에 집중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대체로 대학간의 협동 체제에서 실현되고 있는 협동 가능성의 내용은 ① 교과과정 운영에 있어서의 협동, ② 교수 및 학생 교류, ③ 공동 학술 연구의 추진, ④ 대학의 관리·운영면에서의 협동 등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그동안 대학간의 협동 체제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역 단위별로 대학간의 협동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으나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현재 대학간의 협동 체계로서는 타교의 교수 초빙, 도서 및 정보 자료의 상호 이용, 교수들에 의한 교제의 공동 발간 및 공동 연구 등을 들 수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일부 대학원간에 학점 인정제와 공동 강좌 개설 및 서울과 지방대학간의 교환 교수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학교육 인구의 양적 팽창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다양화·고도화되는 데 반하여 대학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대학 상호간의 협동 체제 구축은 매우 절실하다.

향후 대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협동 체제의 형태는 첫째로 교육과정 운영면에서 학점의 자유 취득과 공동 강좌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현재 일부 지역의 대학원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

는 협동 체제를 학부 수준까지 확대·발전시키는 것이다.

둘째로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교육과정의 공동 운영과 관련된 것이지만, 특수 분야에 전문 교수가 한 대학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공동으로 활용되는 방안과 高價의 실험·실습 시설 및 연구 시설을 상호 공동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도서 및 자료의 상호 이용 교류는 될 수 있으면 간편한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로 학술 및 학문 발전의 폐쇄성을 지양하고 전문 분야의 질적 향상을 기하며 연구 결과의 효율적인 활용 및 대학간 연구 협력과 통합을 위하여 공동 연구 및 학술지의 공동 발간을 기하여 깊은 연구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유사한 연구소를 통·폐합하여 공동 연구소를 설치·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 4) 産學協同體制의 活性化

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대학교육과 산업 체계와의 관련성을 높게 함으로써 교육과 직업의 적절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협동의 가치는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산업체 내에서는 창의적인 새로운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한편 대학은 교육 및 연구의 여러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구미 선진 각국에서는 산학 협동의 필요성을 일찍이 깨달아 처음에는 공학 분야에서 실시하던 것을 오늘날에 와서는 경영 및 무역 계통에 널리 활용하고 있어 실제적인 학문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20여년 동안 경제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산업 및 경제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산학 협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특히 1973년 産業教育振興法の 제정으로 실업계 교육에 산업 현장 학습을 강화하였으며, 1974년에 발족한 産學協同財團은 오늘날 산학 협동의 모체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현상으로 보아 아직도 산학 협

등의 체제가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앞으로는 산업계와 학계가 상부상조 한다는 기본 철학하에서 인적·물적 상호 교류와 폭 넓은 정보의 교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산학 협동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대학과 산업체간의 인적·물적 상호 교류로서 산업체에서는 대학이 산출한 연구 결과나 인력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대학에 대한 제정 보조로 연구비와 장학금 등을 지원하여야, 경우에 따라서 교수와 연구원을 초청하여 현장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한편 대학에서는 분야별로 부족한 교수 요원을 위하여 산업체의 인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실재적인 학문의 발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대학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측면에서 부족한 실험·실습 시설의 낙후성 등으로 충분한 실험·실습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므로 산업체의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공동 실험·실습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대학의 교수진과 산업체 인사 또는 대학의 연구소와 산업체 연구소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이론과 실제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5) 學習環境의 改善

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대학내에 학습 효과를 제고시키는 교수 요원과 교육 시설이 무엇보다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 여건을 보면 전임 교수 확보율이 저조하며 교수 부담이 가중되어 질 높은 교수와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없다. 또한 교육 시설면에서도 외곽 및 내부 시설의 확보율이 저조하며 교육 환경이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대학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학술 연구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전임 교수의 확보와 교육 및 연구 시설 등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에 있어서 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전임 교수의 확보가 매우 미흡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 수는 정원 정책에 의

하여 조정이 용이하지단, 교수를 양성하여 배출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 증가에 따라 교수 확보율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경우, 법정 정원에 대한 전임 교수 확보율을 보면 전체 대학 115개교 중 확보율이 80% 이상인 대학은 불과 21개교로서 전체의 18%밖에 되지 않으며, 확보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이 41개교로서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전임 교수 확보율이 낮고 교수 증가가 학생 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교수 1인당 학생 지도 부담이 과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여건하에서는 선진국처럼 수월성이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학부와 대학원 강의 시간과 대학원생들의 논문 지도 시간 수 등을 포함하여 교수의 수업 부담을 적정화하고 이를 위하여 전임 교수의 확보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직 교수의 자질 향상 및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연수 기회와 제공과 교환 교수제의 확대 실시 및 학술 연구 활동의 지원과 강화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시설 여건은 교육과 연구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인이다. 현재 대학의 교육 환경 시설은 외곽 시설의 확보율이 저조하여 절대 공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교육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부 시설, 즉 실험·실습 시설 등의 부족 현상이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경제 발전의 형태가 과학 기술 인력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커서 자연 계열의 실험·실습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학 기술 지식의 수요에 부응하여 실험·실습 기자재 등을 현대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시설에 대한 기능적·공간적·시간적 차원에서 그 활용률을 제고하도록 시설의 유지와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학 시설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다른 대학과의 협동을 통한 공동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일제 수업 및 계절 학기제의 운영 등 효율적인 학사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3. 結 論

우리나라는 원래 부존 자원이 거의 없고 축적된 민중 자본도 매우 빈약한 상태에서 그동안 경이적인 경제 발전을 하여 왔다.

이러한 경제 발전은 그동안 우리 경제가 수출 주도형의 노동 집약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었던 관계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경제는 과거와 같이 값싼 노동력을 근간으로 하여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이룩할 수 있는 기틀이 점차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은 지식과 정보 집약 산업을 주축으로 하여 첨단 기술을 개발하여 다른 나라보다 비교 우위적인 경쟁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교육은 보다 높은 차원의 전문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대학교육에 주어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지금까지 경제 발전에 의한 고급 인력의 수요 증대에 따른 학생 수를 증가시켜 왔을 뿐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경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대학교육의 발전 전략을 모색함에 있어서 고등교육의 산업 수요를 감안한 대학교육 인구의 적정선을 유지하며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학적 기준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둘째, 경제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하여짐에 따라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인재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상에서 관리자들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과 교수 방법들의 새로운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므로 각 대학들은 독자적인 고유 모델의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대학별 중점 육성 분야를 기하여 교육의 다양화와 전문화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도의 산업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의 가속적인 팽창으로 단일대학은 지식과 정보의 수용력에 한계성이 있다. 그러므로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들간에 협동 체제를 이루어 교과과정, 교수·학생 교류,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발전하는 산업 사회와의 긴밀한 협동은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보장할 수 있다. 산업체 내에서의 창의적인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기능의 상호 협동 체제는 상부상조의 기본 철학이 존재한다. 대학과 산업체간의 인적·물적 상호 교류는 이론과 실제의 만남이라는 결실을 가져오게 할 것이며, 특히 실천적인 학문의 유효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 환경의 개선이다. 급변하고 있는 산업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수 요원의 확보와 교육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생 증가에 따른 전임 교수의 확보가 매우 미흡하였고, 시설 측면에서도 외과 시설과 실험 기자재의 취약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다 높은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수 확보와 시설 확보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나은 교육 환경으로 높은 질의 교육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